

'천년의 미소' 드러낸 신라 마애불

땅 속에 묻혀 있던 천년의 미소가 모습을 드러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지병목)는 9월 10일, 지난 5월 발견된 경주 남산 열암곡의 통일신라 대형 마애불의 상호(相好)를 공개했다(사진 오른쪽). 열암곡 마애불상은 높이 6m에 무게가 70톤에 이르는 화강암에 조각된 것으로, 발견 당시 앞쪽으로 넘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불상의 자세한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9월 10일 마애불상 친견법회를 봉행했다.



남은 이날 경주 남산을 방문해 열암곡 마애불상 친견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총무부장 현문 스님과 불교중앙박물관 관장 범하스님,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등이 참석했다. 지관 스님은 "1300년이라는 시

간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보존이 잘 돼 있는 것은 부처님의 신력"이라며 "독립된 돌에 조각한 것이므로 마애불이 아닌 석조여래입상이라 불려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오뚝한 코·도톰한 입술 등 원형 간직 지관스님 열암곡 방문 친견법회 봉행

이날 모습을 드러낸 마애불은 다원형의 얼굴에 오뚝하게 솟은 코와 아래로 내리뎀 길고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도톰하고 부드럽게 처리된 입술 등이 표현되어 있으며 육체가 높고 민머리(素髮) 형태를 하고 있다. 특히, 귀는 발제선(髮際線) 머리털이 난 끝선에서 어깨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크고 평면적으로 처리되어 있는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다. 목에는 삼도(三道)가 입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어깨는 넓고, 가슴은 퍼고 있어 당당한 모습을 보여준다. 불상의 가장 큰 특징은 수인인데, 보통 시무의인 여원인과는 달리 손등을 바깥으로 향한 채 왼손은 가슴 위에, 오른손은 허벅부에 대고 있는 형태를 하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마애불의 볼륨 있는 상호와 날카로운 눈매에서 느껴지는 엄숙함 등 통일신라 불상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8세기 후반 작품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불상이 위치한 열암곡은 입지가 협소해 중장비의 접근이 어려워 불상을 일으켜 세우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불상을 90도 회전시켜 와불(臥佛) 형태로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

금복사, 300년 된 불상서 사리 발견

국·한문 혼용 <법화경>도 산시 황둥면 황룡사로 옮겨졌다가, 1986년 도선 스님이 현재의 금복사에 봉안하게 됐다고 사찰측은 설명했다. <법화경>은 총 6권 중 1~2권은 소실된 채 3~6권만 남아 있는데, 제작연도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내용이 국한문 혼용체로 쓰여 있는 이 <법화경>에는 어려운 한자를 한글로 읽는 법과 뜻풀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글자가 있어 한글 변천사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복사 관계자는 "최근 불상을 개금하는 과정에서 불상의 복장에 부처님 사리와 <법화경> 등이 있는 것을 알았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김재 금복사주지 도선의 불상에서 사리와 국·한문 혼용 <법화경> 등이 발견됐다. 금복사는 조성된 지 300여 년 되는 이 불상의 복장에서 나온 사리 2과와 사리함, 국·한문 혼용 <법화경> 4권을 9월 10일 공개했다. 또 사리함에서는 사리와 법씨 등 5곡을 싸고 있던 5색의 비단이 나와 17세기 직물사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리함을 싸고 있는 발원문에 따르면 이 불상은 강화 15년(1676년) 5월에 조성돼 완주군 고산면(현 운주면) 대문산 안심사 소속 화장암에 봉안됐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후 누군가에 의해 이

초심자 위한 호계불교대학 개강



울산 연화사주지 덕륜은 9월 12일 제4기 호계불교대학 개강식을 봉행했다(사진). 개강식에서 호진 스님(前 동국대학교 수)은 '불교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법론했다. 2005년 문을 연 호계불교대학은 수강생 중 초심자들이 특히 많은 것이 특징. 덕륜 스님은 "호계불교대학에는 처음으로 불교와 인연을 맺는 젊은 직장인들이 많은데 이것이 바로 포교의 참된 열매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스님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불교대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불사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052)293-5550 하성미 기자

대불련 제5회 총동문화·전진대회 개최 "초발심으로 새롭게 도약"

1965년부터 역사의 중심에서 불심으로 주춧돌 역할을 담당해왔던 대학생 불자동문들이 모였다. '초발심으로 미래도약!'을 마음에 새기고 지난 9월 8일과 9일 이틀 동안 부산 범어사(주지 대상)에 모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전보삼) 동문 300여명은 제5회 대불련 총동문회를 개최하고 법회, 수계식, 대불련 희망 띄우기 및 전진대회를 통해 미래를 향한 발전을 기약했다. 또 나눔과 봉사를 위한 사단법인 '(가칭)자비실천연대' 설립 경과보고를 통해 앞으로 복지 및 봉사과 아울러 대학생 불자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및 대학생 포교에 주력할 것을 결정했다. 임제사에서 전보삼 총동문화회장은 "1963년 상구보리화회 중생의 보살도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창립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44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이 땅의 중생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해결을 위해 응맹

정진 해왔다"며 "우려를 금치 못할 지금의 불교계 현실과 세계적 흐름 속에서 44년 전 대불련의 창립 정신으로 돌아가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이 땅에 실현하겠다는 원대한 원력으로 정진해야 한다"고 말하며 초발심을 되새겼다. 이날 참석한 이성균(부경대 75학번) 대불련 동문회원은 "추석을 맞아 바쁜 시간 중에 참여했는데 과거에 함께 활동했던 동문들을 만나니 기쁘고 즐겁다"며 "과거에 비해 활동하고 있는 불자대학생들이 적어지고 있어 안타깝지만 설립 중인 '자비실천연대'를 통해 대학생 포교 및 복지 지원을 할 수 있어 희망이 보인다"며 참가 소감을 밝혔다. 한편 임제사에서 대불련 총동문화회는 부산불교사회복지청소년 기관 협의회(회장 혜총) 이춘성 사무국장에게 자비의 쌀을 전달했다. 자비의 쌀은 옹호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13개 복지관에 전달된다. 하성미 기자

대구·경북 재가연대 창립

대구·경북 참여불교 재가연대(대표 박운식)가 9월 8일 창립했다. 8일 대구 프린스호텔 별관 2층에서 열린 창립법회에는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을 비롯해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박광서 원장,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 등 5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대구·경북 참여불교 재가연대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사부대중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운영하는 청정교단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한국불교를 건강하게 하는 길"이라며 "대구·경북 참여불교 재가연대의 창립으로 참여불교 운동이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어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운식 회장은 "대구·경북 재가연대 창립을 위해 3년간 애써준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불교계와 우리 사회가 청정하고 투명한 사부대중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법천 대구경북지사장

경북법우회 10주년 기념 법회

경북대법원의 이·치과대학 불교법우회(회장 이원길, 이하 경북법우회)가 9월 10일 경북대법원 대강당에서 창립 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해인사 승가대학장 법진 스님은 '해체주의와 화합' 주제 특강을 했다. 경북법우회는 1997년 6월 창립한 이래 현재 1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매달 정기법회와 성지순례 등을 봉행하는 한편, 불우이웃돕기 등의 봉사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원길 회장은 "경북법우회 회원들이 부처님 가르침 아래 더욱 정진하고 회향에도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며 "연내에 캄보디아 우물 파기 성금 150만원을 모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법천 대구경북지사장

파라미타 11주년 기념 행사

파라미타 부산 청소년협회(회장 백명숙)는 9월 8일 창립 11주년 기념식을 열고 '청소년 맨스 페스티벌'과 연극 '목련존자 지옥문을 열다' 등 다양한 문화의 장을 마련했다. 8일 부산 동래중학교 체육관에 모인 청소년 500여명은 춤, 노래, 마술쇼 등 다양한 재능을 뽐냈고 법회에 참석해 삼귀의와 반야심경 독송 등 불교문화를 체험했다. 이날 파라미타 부산 청소년협회는 지역 학생들에게 모범상과 봉사상, 참가봉사상 등을 수여했다. 하성미 기자

"강릉지역 포교 새 장 연다"

교동에 불교문화원 개원

강릉의 신도시인 교동에 솔솔불교문화원(원장 현중, 현덕사 주지)이 개원했다. 솔솔불교문화원 개원법회에는 9월 8일 증명나사 주지 청우, 범어사 선원 방두, 강릉 선혜원장 무승 스님을 비롯해 심종인 강릉시 의원, 임용수 교1동장, 조수현 교1동 자치위원장, 김진철 현덕사 신도회장, 박용자 공덕회장, 최경주 솔솔불교문화원 운영위원장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원장 현중 스님은 "오늘 부처님께 절을 하면서 개원법회에 동참한 분들이 부끄럽지 않게 문화원을 잘 운영해야겠다는 원을 세웠다"며 "향후 영동지방의 중심지가 될 이곳에 택지가 조성된 지 10년만에 법당을 세운만큼 사명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중앙불교대학원 남·여 <승려 교육생 모집>

기본 과정	사율(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식, 쉿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공,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범음, 범패, 작법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등
불교학 개론	대승불교, 초기불교, 화엄사상, 반야사상, 법화사상, 정토사상, 선사상, 밀교사상, 유식사상,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초발심자경문

- ◆ 모집인원 : 30명
- ◆ 원서접수 : 수시접수 ◆ 개강일시 : 2007년 9월 15일 오전 9시
- ◆ 제출서류 : ◆ 입학원서 - 1통 ◆ 주민등록등본 - 1통 ◆ 변명함판사진 - 3매
- ◆ 중앙불교대학원 교수진
 - 회암스님 · 前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산 건봉사 주지, 고려대학교 노동문제 연구학 출신, 철학박사
 - 마정스님 · 종단진흥회 부회장 겸 임제선학원 원장, 철학박사
 - 예성스님 · 바라법패 전수자, 구화종 총무원장
 - * 기타 필요강사 초빙 강의

※ 불교학을 알아야 법문(설법)을 잘한다. 교육하면서 지도자적 발전 지도함.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901-212404 (예금주 :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 문의 : 본대학 사무국 : 전화 031)676-0908 / 팩스 031)675-0206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산 44)



(공) 대한불교 종단진흥총연합회 부설 중앙 불교 대학원